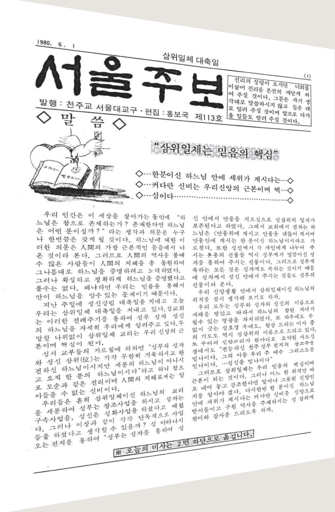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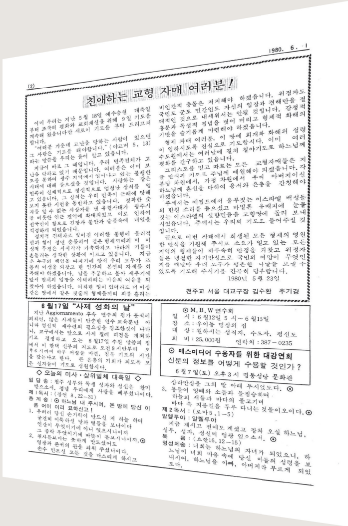
응답하라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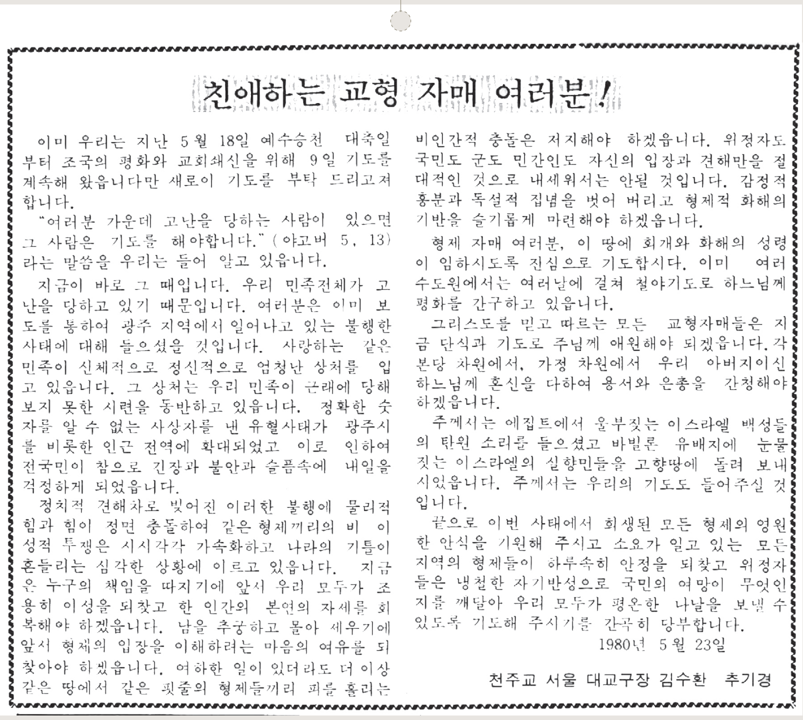

1980. 6. 1
삼위일체 대축일
서울주보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편집 : 홍보국 제113호
◇ 말 씀 ◇
"삼위일체는 믿음의 핵심"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김수환 추기경의 메시지


1980. 6. 1
(2)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980년 6월 1일 삼위일체 대축일에 김수환 추기경은 서울주보 2면에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난 5월 18일 예수승천 대축일부터 조국의 평화와 교회쇄신을 위해 9일 기도를 계속해 왔읍니다만 새로이 기도를 부탁 드리고져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해야합니다."(야고버 5, 13)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읍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우리 민족전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도를 통하여 광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같은 민족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읍니다. 그 상처는 우리 민족이 근래에 당해보지 못한 시련을 동반하고 있읍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 사상자를 낸 유혈사태가 광주시를 비롯한 인근 전역에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국민이 참으로 긴장과 불안과 슬픔속에 내일을 걱정하게 되었읍니다.

정치적 견해차로 빚어진 이러한 불행에 물리적 힘과 힘이 정면 충돌하여 같은 형제끼리의 비이성적 투쟁은 시시각각 가속화하고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읍니다.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조용히 이성을 되찾고 한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해야 하겠읍니다. 남을 추궁하고 몰아 세우기에 앞서 형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야 하겠읍니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같은 땅에서 같은 핏줄의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는 비인간적 충돌은 저지해야 하겠읍니다. 위정자도 국민도 군도 민간인도 자신의 입장과 견해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정적 흥분과 독설적 집념을 벗어 버리고 형제적 화해의 기반을 슬기롭게 마련해야 하겠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 회개와 화해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이미 여러 수도원에서는 여러날에 걸쳐 철야기도로 하느님께 평화를 간구하고 있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교형자매들은 지금 단식과 기도로 주님께 애원해야 되겠읍니다. 각 본당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혼신을 다하여 용서와 은총을 간청해야 하겠읍니다.

주께서는 에집트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 소리를 들으셨고 바빌론 유배지에 눈물짓는 이스라엘의 실향민들을 고향땅에 돌려 보내시었읍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에서 희생된 모든 형제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해 주시고 소요가 일고 있는 모든 지역의 형제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위정자들은 냉철한 자기반성으로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1980년 5월 23일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당시의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잘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아주 빠른 시간에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김 추기경의 메시지에는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완곡하지만 강력한 권고가 담겨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전국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서울 등 대도시의 대학 캠퍼스에 계엄 군인들이 진입하였습니다. 당시 4~5월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5월 18일 아침부터 전국 대학의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대 앞에 대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계엄군은 이들을 거칠게 폭력적으로 해산시켰습니다. 이날 오후에도 광주 시내 곳곳에서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으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그 다음에도 시위는 걷잡을 수 없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계엄군의 총격 발포로 사상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광주 지역은 철저하게 봉쇄되어 출입은 물론 전화도 불통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철저한 보도 통제도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의 비극적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언론